



Center for Korea Studies  
University of Washington

# 검열공화국에서 외국잡지 읽기:

군사독재시기(1960~80년대) 한국의 외국잡지 수용

## Reading Foreign Magazines under the Censorship Regime: The Reception of Foreign Magazines in South Korea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1960-1980s

**\*Note: This talk will be conducted in Korean. 이 발표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 Jung-hwan Cheo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Sungkyunkwan University



‘근대화’가 시작된 이래 한국에는 유럽이나 미국, 혹은 일본이나 중국대륙으로부터 신문·잡지들이 수입되었다. 이 간행물들은 언제나 세계와 ‘현대’로 열린 동시성의 창이자, 선진적 이념과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최전선의 광장이었다. 그래서 외국 신문·잡지의 이입·수입은 권력과 ‘지식’ 사이의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시대에는 총독부 권력이,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과 일련의 독재정권이 구텐베르크의 은하계로부터 한반도로의 간행물의 흐름을 차단했다. 여기에는 한국이 분단과 내전을 겪은 결과, 동아시아-태평양 냉전체제의 최전방인 동시에 세계로부터 고립된 섬이라는 맥락이 있다. 언제나 더 많은 미국·일본 문화, 그리고 그 간행물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음에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권력의 입장에서는 ‘통제’가 필연이었다. 따라서 이 역사는 한국이 짊어진 분단과 냉전 문화사의 일부이다. 이는 검열과 사상통제연구가 갖는 일반적 의의와 방법론으로서의 가치 외에도 한국의 문화적 ‘현대성’이 내포하는 필연적 혼종성과 냉전문화에 관련된 높은 연구가치를 갖는다.

Prof. Jung-hwan Cheon teaches Korean literature, novels in particular, and cultural theories at Sungkyunkwan University in South Korea. A 2002 Ph.D. from the Korean Literature Departm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 Cheon has conducted research on the history of cultural politics in Korea and engaged contemporary South Korean popular culture as a culture critic. His publications include *Reading Books in Modern Times* (2003), *The Revolution and Laughter* (2005), and *The Era of Collective Intelligence* (2008).

**1:00-2:30 PM, Thomson Hall 317**

**Thursday, Oct 9, 2014**



The Henry M. Jackson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Washington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206-543-4873, email [uwcks@uw.edu](mailto:uwcks@uw.edu) or visit <http://jsis.washington.edu/korea/>.

To request disability accommodations, contact the Disability Services Office at least ten days in advance of the event: 543-6450 (voice); 543-6452 (TDD); 685-7264 (fax); [dso@uw.edu](mailto:dso@uw.edu).

